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영문학석사 학위논문

유생성에 따른 영어 타동사 구문의  
한국어 번역 유형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신 애

영문학석사 학위논문

유생성에 따른 영어 타동사 구문의  
한국어 번역 유형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영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신 애

신애의 영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2월 25일

주 심 영어학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 목 차

영 문 초 록 .....	ii
<b>I. 서론</b> .....	1
<b>II. 이론적 배경</b> .....	4
2.1. 유생성 .....	4
2.2. 타동성 .....	6
<b>III. 유생성에 따른 영한 번역 유형</b> .....	9
3.1. 타동사 구문의 번역 .....	9
3.2. 생물주어 구문 .....	10
3.2.1. 생물목적어 .....	10
3.2.2. 무생물목적어 .....	15
3.3. 무생물주어 구문 .....	23
3.3.1. 생물목적어 .....	23
3.3.2. 무생물목적어 .....	28
<b>IV. 결론</b> .....	38
참 고 문 헌 .....	40

# Animacy and Korean Translations of English Transitives

Ae, Shin

*Graduate School of English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English transitives translate into Korean and how English-Korean translations are affected by the idea of animacy. 145 English transitives (including 124 animate subject sentences and 21 inanimate subject sentences) were selected from Reader's Digest (English-Korean Version) Vol. 101.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the animate subject sentences (22.6%) have fewer changes than that of the inanimate subject sentences (52.4%). The Korean translation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animacy of the subjects and the object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Most of the animate subjects are kept as subject in their Korean translations. When the animate objects are used, two thirds of them are translated taking Korean personal suffix '-ege'. In the

case of inanimate objects, double subject structures in which the original subjects still keep their positions and the objects are promoted to a subject position are remarkable.

When inanimate subjects remain as subject in Korean, the inanimate subjects are such as organization, country, city, machine or less typical agents (e.g tumor). In the case of animate objects in inanimate subject sentences, 83.3% of the animate objects are promoted to a subject position and the inanimate subjects are translated into Korean mainly as an instrument, a place or an adverbial adding the proper Korean suffixes.

With either inanimate subject or inanimate object, the element which implies a human participant can be translated as the subject in Korean. When the transitive clauses are less prototypical or Korean translations are affected by English which allows inanimate subjects, inanimate subjects tend to be translated in their original positions in Korean, too.

# 1. 서론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의 유생성이 한국어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 (김은일 외 2009). 주어가 생물인 경우 아래 (1)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도 주어로 번역되지만,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는 (2)에서와 같이 주어로 번역되지 않는다.

(1) a. Keely buried *her face* into her father's shoulder.<sup>1)</sup>

b. 킬리는 아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Reader's Digest<sup>2)</sup> 101: 58)

(2) a. His interview report described *him* as confident, sincere...

b. 그를 면접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터 드미트릭은 자신감이 있고 성실하며...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1)에서처럼 생물(특히 사람)이 타동구문의 주어로 선택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럽지만,<sup>3)</sup> (2)에서는 'His interview report'라는 무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도 주어로 번역된다면 아주 어색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2b)에서 영어 무생물주어는 한국어 번역에서 주어로 유지되지 않고 처

---

1) 예문에서 밑줄은 주어, 기울임체는 목적어를, 굵은체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을 나타낸다.

2) 본 연구에서는 이를 RD로 약함.

3) 김은일(2001)에 의하면 한국어와 같은 무생물주어 비허용형을 '유생성 구분형'이라 주장한다.

소를 나타내는 격조사를 취하고, 생물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어 타동사 구문이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무생물주어의 사용이 자유로운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무생물주어의 사용에 상당한 제약<sup>4)</sup>이 있기 때문에 (2b)에서 (2a)의 무생물주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된다.

조인정(2005)은 무생물주어 구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구문을 분석하고 이를 일반화 하였다. 영어 무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 원인, 이유, 수단, 도구, 조건 또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나 절로 번역되고, 타동사는 자동사 또는 형용사로, 목적어는 주어로 선택되어 한국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무생물주어 구문의 번역이 위의 내용과 상이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의 무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는 대부분 부사구나 절로 번역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생물주어가 조인정의 일반화와는 달리 한국어에서 주어자리를 유지하여 번역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3) a. “Washington Shows *Great Enthusiasm* in Our Proposal.”

b. “워싱턴이 우리의 제안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RD 101: 72)

(3)은 위의 조인정(2005)이 제시한 도식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예로서

4) Song(1987: 74-76)은 한국어는 수동구문에서도 주어가 일반적으로 의식이 있는 생물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i) a. John은 그 사과를 먹었다.

b. \*그 사과는 John에게 먹혔다.

ii) a. 어머니는 아이에게/를 약을 먹였다.

b. \*약은 아이에게 먹혔다.

한국어에서도 무생물주어와 목적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된 경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의 타동사 구문이 주어와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라 한국어번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무생물주어 구문의 번역이 조인정(2005)이 제시한 유형 외에 어떤 번역 유형이 있는지 Reader's Digest 영한 대역(이하 RD로 약함) 101권(2009)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생성(animacy)과 타동성(transitivity)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유생성이 영한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 2. 이론적 배경

여기서는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한 번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념인 유생성(animacy)과 타동성(transitivity)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하겠다.

### 2.1. 유생성

유생성(animacy)이란 생명이 있는 생물(animate)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inanimate)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유생성이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유생성을 나타내는 요소들 사이에도 위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위계들은 유생성의 하위 개념을 이루고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유생성은 생물과 무생물의 의미적 차이점이 우리말의 구조에서는 부호화되는 반면, 영어에서는 유생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유생성은 다양한 언어의 문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Comrie 1989: 9장; Croft 1990; Yamamoto 1999; 김은일 2000). 언어에 따라서 명사형태론, 동사형태론 뿐만 아니라 어순(word order)과 주어선택(subject selection)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유생성은 생명이 있고 없음과 같이 이분법적으로만 아니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roft(1990)는 Dixon(1979)에서 발견되는 광의의 유생성 위계를 인칭(person)위계, 명사구(NP-Type)위계와 진정한 의미의 유생성

위계로 세분화하였다.

(4) 유생성 위계(animacy hierarchy)<sup>5)</sup>

- a. 인칭위계: 1, 2인칭 > 3인칭
- b. 명사구유형위계: 대명사 > 고유명사 > 보통명사
- c. (진정한) 유생성위계: 인간 > 비인간생물 > 무생물

본 연구와 관련된 위계는 (4c)의 진정한 의미의 유생성 위계이다. (4c)의 비인간생물을 좀 더 세분화하면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생성 위계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어문법과는 달리(cf. 김은일 2000), 한국어문법에서는 동물과 식물의 경계가 유생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5) a. 나는 철수에게/\*에 물을 주었다. (인간)
- b. 나는 개에게/\*에 물을 주었다. (동물)
- c. 나는 꽃에/\*에게 물을 주었다. (식물)
- d. 나는 벽에/\*에게 물을 뿌렸다. (무생물)

위의 예에서 인간과 동물은 격조사 ‘에게’를 취하는 반면, 식물과 무생물<sup>6)</sup>은 격조사 ‘에’를 취한다. 이는 유생성의 (문법적)경계가 동물과 식물

5) 유생성 위계(animacy hierarchy)는 Michael Silverstein(1976)에 의해 최초로 논의된 개념임(Hierarchies of features and ergativity).

6)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실제 텍스트에서 생물(인간)도 무생물도 아닌 병의 종류라 일컫는 ‘lupus(루프스)’와 ‘tumor(종양)’이 주어로 사용된 문장이 있으나, 이 같은 경우 스스로 변화를 만들긴 하지만 행위자성(agentivity)의 결여로 무생물에 포함시킴. 자세

사이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생물과 무생물만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것이다.

## 2.2. 타동성

이 절에서는 유생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타동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유생성은 참여자(participant)의 타고난(inherent) 의미적 자질로서 동사나 다른 참여자와는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반면, 타동성은 참여자 및 동사의 의미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김은일 외 2009).

Givón(1993, 2001)은 타동성을 결정하는 의미특성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6) 전형적인 타동성의 의미론적 정의

- a. 행위자성(agentivity): 전형적인 타동질의 주어는 의도적(volitional)으로 행동하는 행위자(agent)이다.
- b. 피영향성(affectedness): 전형적인 타동질의 직접목적어는 구체적(concrete)이고 가시적으로(visibly) 영향을 받은(affected) 피동작주(patient)이다.
- c. 완료성(perfectivity): 전형적인 타동사는 실시간으로 발생한, 사건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분명하고(bounded), 종결되고(terminated), 빠르게 변화하는(fast changing) 것을 부호화한다.

---

한 내용은 3장을 참고하기 바람.

전형적인 타동구문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시작하고, 피동작주는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에 의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으며, 동사의 사건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여야 한다.

더(more) 전형적인 —즉, 타동성이 높은—타동사구문과 덜(less) 전형적인—즉, 타동성이 낮은—타동사구문을<sup>7)</sup> 아래의 예에서 비교해보도록 하자.

(7) a. John broke the window.

b. John saw the window.

(7a)는 행위자(즉, John)의 의지와 피동작주(즉, the window)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피영향성, 그리고 깨(break)는 행위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분명하고 빠르게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타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7b)는 행위자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고, 피동작주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도 없으며, 보(see)는 행위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타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타동성이 높은 동사도 예문(8)과 같이 무생물주어를 허용한다.

---

7) 여기에서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에 입각해서 ‘전형적인/비전형적인’과 같은 이분법적 표현대신에 ‘더(more)/덜(less)’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김은일 외 2009). 원형이론의 기본적인 이해는 Lakoff(1987)를, 그리고 원형이론을 설명하는 다양한 문법현상은 Taylor(1989)를 참조하기 바람.

- (8) a. The key opened the door.  
b. 그 열쇠로 문을 열었다.  
c. \*그 열쇠는 문을 열었다.

동사 ‘open’은 타동성이 높은 동사이므로 ‘the key’라는 무생물주어를 허용한다. 한국어에서는 ‘The key’의 행위자성이 아주 낮아 주어 역할로 번역되지 않고 ‘그 열쇠로’라는 도구격으로 번역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sup>8)</sup> 행위자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행위의 결과 목적어가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가 예상되므로 전형적인 목적어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인 유생성과 타동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래 3장에서는 영어 타동사구문의 주어와 목적어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유생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8) 타동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opper and Thompson(1980)의 타동성의 높낮이 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 3. 유생성에 따른 영한 번역 유형

본 장에서는 타동사 구문의 주어와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라 영한 번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3.1. 타동사 구문의 번역

Reader's Digest 영한 대역 101권(2009)에서 타동사 구문이 모두 145개가 발견되었다. 이 중 생물주어 구문이 124개, 무생물주어 구문이 21개였다. 발견된 타동사 구문을 주어와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라 분류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주어와 목적어의 번역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교해본 결과는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주어와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른 번역유형 및 빈도

유생성 번역유형	생물주어 생물목적어	생물주어 무생물목적어	무생물주어 생물목적어	무생물주어 무생물목적어
	무 변화	17(56.7%)	79(84.0%)	1(16.7%)
변 화	13(43.3%)	15(16.0%)	5(83.3%)	6(40.0%)
계(%)	30(100%)	94(100%)	6(100%)	15(100%)

<표1>에서 보면 생물주어 구문 총 124개 중 생물주어 구문의 한국어 번역에 변화가 있는 비율(28개: 22.6%)이 무생물주어 구문의 번역에 변화

가 있는 비율(11개: 52.4%)보다 낮고, 생물주어 구문의 주어와 목적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는 경우가 무생물주어 구문의 경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주어 구문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무생물주어 구문과 달리 전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른 번역유형 및 빈도를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생물주어 구문을 목적어 유생성에 따라 분류하여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3.2. 생물주어 구문

생물주어가 사용된 경우는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목적어가 생물인 경우와 무생물인 경우이다. 먼저 생물목적어가 사용된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 3.2.1 생물 목적어

병렬언어자료에서 발췌한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 30개 중에서 17개(56.7%)는 한국어에서도 주어와 목적어를 그대로 유지하여 번역된 무변화인 경우이고 나머지 13개(43.3%)는 주어나 목적어의 번역이 달라지는 변화의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1) 무변화

무변화인 경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어의 주어와 목적어가 한국어에서도 주어는 주격조사 ‘-은/는, -이/가’를 취하고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여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는 경우이다. 아래 예문(9)을 살펴보도록 하자.

- (9) a. When Anderson and Peever spotted *Keely*, she was about 200feet away.  
b. 앤더슨과 피버가 킬리를 발견했을 때 아이와 열차와의 거리는 200피트(약60m)였다. (RD 101: 50)

예문 (9)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주어에 ‘-은/는, -이/가’가 붙으며, 목적어 ‘Brandon’이 ‘브랜든을’, ‘Keely’가 ‘킬리를’로 조사 ‘-을/를’을 취하여 번역된다. 아래 (10)의 경우 생물주어 ‘그는’이 생략되어 번역되고 목적어는 유지되어 번역된 경우인데,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되어도 문맥상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같이 주어가 생략될 때 모호성이 크지 않다면 그 주어는 생략<sup>9)</sup>될 수 있는 것이다.

- (10) a. He puts *himself* down constantly.  
b.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있어요.(RD 101: 8)

목적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어지지만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격조사 ‘을/를’을 취하지 않고 아래 예문(11)과 같이 목적어가 다른 형태로 나타

---

9) 주어생략에 대한 내용은 김은일, 정연창(2006)을 참고하기 바람.

난 경우이다.

(11) a. ...she also included *the area's residents*, about 6500 people.

b. ...본즈는 6500명쯤 되는 *이 지역의 주민들까지* 치료대상에 포함시켰다. (RD 101: 88)

(11a)의 목적어가 (11b)에서 특수조사<sup>10)</sup> ‘까지’를 취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까지’로 번역 되었지만, 목적격조사 ‘을’이 붙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목적어가 유지되어 번역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영어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한국어번역에서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영한 번역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변화

한국어번역이 달라진 경우가 총 13개였는데 여기서도 타동사 구문의 주어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해 13문장(100%)의 생물주어 모두 한국어에서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이 되었고 생물목적어의 형태만 다르게 번역되었다. 그렇다면 영어의 생물목적어는 한국어 번역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목적어가 여격<sup>11)</sup>조사 ‘에게’를 취하여 번역된 경우가 9개(69.3%)

10)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은’, ‘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따위가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1) 목적어가 여격이 되는 영어 타동사에는 give, ask, teach, send, show, tell, promise,

로 가장 많았다. 아래의 (12)를 살펴보자.

(12) a. she called *their family doctor*, who had treated Brandon and his 14-year-old sister, Shannon...

b. 마리는 브랜든과 새넌(14)남매를 어렸을 때부터 치료해온 가정의에게 전화했다. (RD 101: 8)

(12)의 목적어 ‘their family doctor’가 ‘가정의에게’로 번역된 것은 2.1. 유 생성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어에서는 인간과 동물은 격조사 ‘에게’를 취하는 반면, 식물과 무생물은 격조사 ‘에’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목적어가 모두 생물이기 때문에 격조사 ‘에게’를 취한 것이다.

둘째,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하여 이중주어<sup>12)</sup>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2개였는데 두 문장 모두 원래 있던 생물주어가 생략되었다. 예(13)를 살펴보자.

(13) a. I want *my Mommy*.

b. 우리 엄마 보고 싶어. (RD 101: 54)

insult, thank, obey 등이 있다. 여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Givón (1993), 우형식 (1996)을 참고하기 바람.

12) 서정수(1971)에 의하면 아래 예와 같이 이중주어 문장의 첫 번째 명사와 두 번째 명사는 주격조사라고 하는 ‘이’ 또는 ‘는’과 결합한다.

a) 그이는 목이 쉬었다.

b) 그분은 재주가 모자란다.

c) 김씨는 돈이 많다.

(13b)에서 주어 ‘나는’이 생략되어도 이 문장의 주어를 확인하는데 전혀 모호성이 초래되지 않는다(김은일, 정연창 2006). 그리고 영어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면서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셋째, 예문(14)의 경우는 영어의 주어와 목적어가 각각 주격, 목적격조사에 붙어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었지만, 영어의 생물목적어의 유생성이 한국어에서 무생물로 바뀐 경우이다.

(14) a. When the Germans had gone, the citizens of Les Martres buried *Pierre* with honours.

b. 독일군이 떠나버리자 레마르트르 사람들은 피에르의 시체를 정중한 장례식을 치른 후 매장했다. (RD 101: 118)

위의 (14)에서는 영어의 목적어가 ‘Pierre’이지만 한국어로는 ‘피에르의 시체를’이라고 번역되었다. Ikegami(1991)<sup>13)</sup>에 의하면 영어는 인간행위자를 상당히 강조하는 언어이다.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인간행위자가 억제(suppress)되는 경향이 있다(cf. 김은일, 정연창 2008). 예를 들어, ‘I don’t understand you.’의 번역문으로서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너의 말(your words)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로는 더 자연스럽다(김은일 외 2009).

나머지 한 개의 경우는 목적어가 자격을 의미하는 격조사 ‘-(으)로’를 취하여 번역되었는데 아래의 예(15)를 살펴보자.

---

13) 더 자세한 내용은 Ikegami(1991: 300-303)를 참고하기 바람.

(15) a. ...they took *more hostages* in the village that...

b. ...게슈타포<sup>14)</sup>는 마을에 쳐들어와 주민들을 인질로 붙잡고...

(RD 101: 118)

새로운 목적어가 추가되고 원래목적어는 자격을 의미하는 격조사 ‘-(으)로’를 취하여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생물목적어가 사용된 생물주어 구문을 살펴봤는데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는 목적어의 번역만 달라질 뿐 생물주어는 한국어 번역에서도 모두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되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목적어가 무생물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3.2.2 무생물 목적어

이 장에서는 생물주어 구문의 목적어가 무생물일 때는 영한번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3.2.1에서처럼 생물주어의 영한번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 (1) 무변화

앞서 살펴봤듯이 유생성이 높은 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도 주어로 유지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 총 94개(100%)중에 79개(84.0%)가 영어의 주어와 목적어가 한국어 번역에서도 아래 (16)처

---

14) 독일 나치스 정권하의 정치경찰을 일컬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럼 주어와 목적어가 유지된 채 번역되었다.

(16) a. They set *their explosives* at a curve in the tracks a mere 300 metres from the station, then waited.

b. 그들은 역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철로가 굽이도는 지점에 폭발물을 장치해 놓고 기다렸다. (RD 101: 114)

목적어에 전형적이 격조사 ‘을/를’을 취하여 번역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3개였다.

(17) a. He remembered the date, November 13, 1981; the time, 4 a.m.

b. 1981년 11월 13일 새벽 4시, 그는 날짜와 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 (RD 101: 48)

위의 (17)은 목적어에 특수조사를 붙여 번역되어진 경우인데, (17b)의 번역에서 ‘날짜와 시간을’로 하여도 무방하나, ‘을’ 대신 특수조사 ‘도’를 취하여 번역되어졌다.

비록 목적어의 유생성이 달라져도 생물주어 구문의 주어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도 여전히 주어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번역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생물주어의 영한번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겠다.

## (2) 변화

영한 번역이 달라지는 총 15개 예문 중에 추론 가능한 주어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하여 14개(93.3%)의 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 모두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나머지 한 개의 경우에 생물주어는 어떻게 번역되었으며, 무생물목적어의 번역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장에서는 무생물목적어가 격상되어 이중주어구문으로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생물주어의 유생성이 바뀐 경우도 포함되었다. 둘째는 목적어가 보어로 번역된 경우이고, 셋째는 목적어에 여격조사가 붙는 경우였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무생물목적어가 주어자리로 격상하여 이중주어 구문으로 번역된 경우가 12개(80%)이다. 아래 (18)를 보면 영어의 목적어가 한국어에서는 주어로 격상되고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되었다.

- (18) a. Brandon needed *more specialized care*, so he was admitted to B.C.'s Children's Hospital in Vancouver.
- b. 브랜든은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벤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동병원에 입원했다. (RD 101: 18)

여기서 동사 'have'가 사용된 문장이 2개이다. 아래 (19)는 영어의 주어가 번역문에서 생략된 경우이다.

(19) a. ...Brandon **has** *no way to vomit*...

b. ...이제는 토할 길이 없었다...

위의 (19)에서 영어동사 'have'를 한국어의 상당어구인 '가지다'로 번역하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I have a son.'의 번역문으로서 '나는 아들을 한 명 가진다.'는 '나는 아들이 한 명 있다.'에 비해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김은일 외 2009).<sup>15)</sup>

(19)와 같이 동사 'have'가 사용되었고 번역 역시 존재 구문으로 표현되었지만, 주어가 전형적인 격조사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20) a. She also **had** *a knack for raising money*...

b. 린에게는 돈을 모금하는 재주가 있었다. (RD 101: 94)

(20b)에서 '린은'이 아니라 '린에게는'<sup>16)</sup>으로 번역되었는데, 한국어 이중주어구문의 변형된 격조사 '에게'를 취하여 번역한 것이다.

이중주어로 번역된 경우에는 주어의 의도성<sup>17)</sup>이 약한 경우를 볼 수 있

15) Ikegami(1991)는 영어는 'HAVE-언어'인 반면 일본어는 'BE-언어'라고 주장한다. 한국어도 일본어처럼 'BE-언어'에 속한다.

16) 이중주어의 대표적인 두 가지 변형관계

a) 이 책 {는, 이} 값이 비싸다. → 이 책의 값이 비싸다.

b) 천장 {는, 이} 손이 닿는다. → 손이 천장 {에} 닿는다. 예문(20)과 관련된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변형관계 a)와 b)가 함께 가능한 예>에서 참조.

eg) 그이가 재주가 모자란다. → 재주가 그이에게 모자란다. → 그이에게(는) 재주가 모자란다. 서정수(1971)

17) 의도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김은일(2002)을 참조하기 바람.

는데, 이 경우에는 목적어 또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타동사의 타동성이 약해진다. 우선,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예를 살펴보자.

(21) a. I see *the mountain* over there.

b. (나는) 저기 산이 보인다. (김신영 2002)

(21)의 주어는 의도성을 가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생략이 되고, 비의도성 접미사 ‘이’가 동사어근에 붙어 ‘보이다’로 표현된다.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의 목적어는 격표지 ‘을/를’이 사용되지만 비의도적인 목적어는 주격표지 ‘이/가’가 사용된다.<sup>18)</sup> 실제 텍스트에서 발견된 아래 예문(22)을 살펴보자.

(22) a. He felt *something*.

b. 뭔가 잡히는게 있었다. (RD 101: 52)

(22)에서는 행위자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고, 피동작주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도 없으며, 행위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타동성이 낮다<sup>19)</sup>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행위자가 의도성을 가지지 않을 때

18) 타동성(transitivity)의 입장에서 전형적인 목적어와 비전형적인 목적어가 다른 표지를 취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Givón(1984)을 참조바람.

19) Givón(1993)에 의하면, 동사 see, hear, feel, know, understand, think, want 등과 같이 지각, 지식, 감정 등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이다. 즉, 이러한 동사는 덜(less) 전형적인 타동사로서 타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 주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되고 동사에 비의도성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취하여 번역되고, 비의도적인 행위의 목적어는 주격표지 ‘이, 가’를 취하여 번역된다. 따라서 (22a)의 주어 ‘he’는 한국어에서 생략되었고, 동사 ‘feel’의 번역이 ‘-를 느낀다, 또는 잡는다’가 아닌 ‘잡히다’로 나타나고 목적어 ‘something’이 ‘뭔가를’이 아닌 주격의 ‘뭔가’로 번역된 것이다.

아래 (23)에서는 생물주어의 유생성이 무생물로 바뀐 경우이고, 앞서 살펴봤듯이, 예문(22)과 같이 지각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 ‘hear’가 사용된 경우이다.

(23) a. Peever didn't hear *the roar of the 4,000-horse-power engine nor the mesh of grinding steel.*

b. 4000마력의 기관차 엔진이 내는 요란한 소리와 강철바퀴의 날카로운 마찰음이 피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RD 101: 52)

(23b)에서 행위자 주어의 행위자성이 약해지고 비의도성을 띠는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주어인 ‘Peever’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찰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23a)에서 생물주어 ‘Peever’가 한국어에서 ‘피버의 귀에는’으로 주어의 유생성이 무생물로 바뀌어 번역되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3.2의 예문(14)과 같은 경우로서 인간행위자<sup>20)</sup>를 중시하는

20) 다음은 인간개념을 중시하는 영어식 표현이다.

a) We are closed today.

b) We are sold out.

위의 a)와 b)는 가게의 문에서 볼 수 있는 문장들이다. 하지만 일본어나 한국어(일

영어의 생물주어가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구체적인 대상인 무생물(즉, 귀)로 바뀌어 번역된 것이다. 그리고 (23b)에서 주어 ‘피버의 귀에는’이 ‘피버에게는’으로 교체되어도 의미적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에서 살펴봤듯이, 조사 ‘에게는’은 이중주어 구문의 변형된 격조사로서 예문(23)은 한국어에서 이중주어 구문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겠다.

둘째, 목적어가 보어의 형태로 번역된 경우이다. 아래 예문(24)-(25)의 두 문장 모두 동사 ‘have’가 사용되었는데 ‘가지다’라는 의미로는 번역되지 않고 두 문장 모두 목적어가 보어 형태로 번역되었다.

- (24) a. My sister had a more virulent form, one that attacked her internal organs.  
 b. 내 동생의 경우는 병이 내장에 침입한 악성이었다. (RD 101: 82)

(24)에서는 목적어에서 선택된 새로운 주어가 생기면서 영어의 원래 주어 ‘my sister’는 한국어 번역에서 주제어의 역할로 번역이 되었다.

아래 (25b)에서는 추론가능한 생물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생략된 경우이다.

---

본어와 같은 언어에 속함)은 이해가 안 갈 것이다. 한국어로는 a)의 ‘we’를 ‘our store(우리 가게)’이라고, b)의 ‘we’를 ‘our goods(우리 상품)’라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비논리적이지만 영어화자들은 인간 개념에 더 강조를하기를 원한다고 Ikegami(1991)가 주장한다.

김은일, 정연창 (2008)에 의하면 영어에 비해 한국어는 인간행위자가 억제(suppress)되는 경향이 있다.

(25) a. Brandon probably **had** *anorexia*. ...The specialist prescribed anti-depressants to calm Brandon's anxiety, but the drugs did nothing to stop the illness.

b. **신경성 식욕부진인** 것 같다는 것이다.<sup>21)</sup>...전문의는 브랜든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항우울제를 처방해주었지만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RD 101: 8)

셋째, 목적어가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지 않고 다른 조사가 붙어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26) a. Then Sandra dialed 9-1-1.

b. 샌드라는 긴급구조 911에도 전화를 걸었다.

여기서 동사 'dial'이 '-에게 전화 걸다'의 의미로 여격 목적어가 사용된다. 위의 (26)에서는 목적어에 여격 조사 '에'와 특수조사 '도'를 취하여 번역된 경우이다.

지금까지 생물주어 구문이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라 번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영어의 생물주어의 유생성이 무생물로 바뀐 경우와 주어가 주제어로 번역된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어 번역에서도

---

21) 예(24)-(25)는 동사 'have'의 과거형이 사용되었지만, (24)에서는 한국어에서도 과거로 번역되었지만, (25b)에서는 과거형으로 번역되진 않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25)의 번역은 문맥상 과거에도 '신경성 식욕부진'으로 고생을 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파악되므로 과거로 번역되지 않은 것이다.

생물주어가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생물목적어가 사용된 문장의 번역은 주로 생물목적어가 여격으로 번역되고, 무생물목적어가 사용된 구문은 주어가 유지된 상태에서 무생물목적어가 주어로 격상하면서 이중주어로 번역되는 동시에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된 양상을 보였다. 다음 장에서는 무생물주어 구문의 번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3.3 무생물주어 구문

여기서는 무생물주어의 번역이 목적어의 유생성에 따른 번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3.3.1 생물 목적어

발견된 타동사 구문 중 생물목적어가 사용된 무생물주어 구문은 6개이다. 1개(16.7%)만이 주어와 목적어가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무생물주어의 사용에 제약이 많은 한국어 번역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 (1) 무변화

무생물 주어와 생물 목적어가 유지되어 번역되어졌고, 김은일 외(2009)가 밝혔듯이, 무생물주어에 숨은 인간 행위자가 암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에서도 무생물주어 유지가 가능하다.

(27) a. For her efforts, Reader's Digest has named Martine a 2001 Health Hero.

b. 그러한 노력을 기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켈리 마틴을 2001년 건강영웅으로 선정했다. (RD 101: 80)

기관(즉, Reader's Digest)은 인간 행위자가 그 속에서 활동을 한다. 'Reader's digest'(영어잡지 또는 잡지사) 자체는 무생물이지만, 잡지를 출판하고, 이 잡지사라는 기관에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인간(생물)이기 때문에 무생물주어인 'Reader's Digest'가 주어로 유지되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 변화

무생물주어가 자연스럽지 않은 한국어 번역에서 영어의 무생물주어가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는지, 유생성이 높은 생물목적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주어로 선택되어지는 경우도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 유형으로 유생성이 높은 생물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어 번역된 경우가 3개 발견되었는데 이 때, 무생물주어는 유지되거나 생략되어 번역되는 경우와 처소격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먼저, 인간행위자가 암시된 무생물주어가 유지되어 번역되면서 목적어도 주어로 격상되어 이중주어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28) a. The Resistance *needed skilled drivers*, and...

- b. 게다가 마키단에게는 운전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했다.  
(RD 101: 112)

예문 (28)에서 ‘The Resistance’<sup>22)</sup>는 ‘저항운동’을 하던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항운동을 할 수 있는 인간(생물)행위자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에서도 주어자리가 유지되어 번역되어진다. 예(20)에서처럼 ‘-에게는’은 주격조사로서 (28b)의 ‘마키단에게는’은 첫 번째 주어이고 ‘운전기술이 뛰어난 사람이’가 두 번째 주어로서 이중주어 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유생성이 높은 생물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고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우선,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예를 살펴보자. (29)의 목적어 ‘me’가 한국어에서 주어로 격상하여 ‘나는’이라고 번역되었다.

- (29) a. The news surprised *me*.  
b. 그 소식에 나는 놀랐다.  
c. \*그 소식은 나를 놀라게 했다. (조인정 2005)

위의 (29c)와 같이 (30)을 번역하면 ‘그것이 나를 퉁퉁 불어나게 하고 있어요.’라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22) ‘Resistance(레지스탕스)’는 프랑스어로 ‘저항’이란 뜻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이탈리아의 지배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저항운동. (28b)의 ‘마키’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한 조직의 이름(브리테니커 백과사전). (28a)의 ‘Resistance’를 (28b)에서 ‘마키단’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 (30) a. The tube was feeding his body, but his illness demanded he starve. “Please Mommy, please Daddy. It’s bloating me.”
- b. 튜브는 그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병마는 그에게 굶을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제발 빼주세요. [Ø(=나는)]<sup>23</sup> 배가 퉁퉁 불어나고 있어요.” (RD 101: 26)

영어의 무생물 주어 ‘It’은 문맥상 추론이 가능하므로 생략되었고, 번역문에서 목적어 ‘me’가 격상하여 주어로 번역된 ‘나는’은 주어 생략이 용이한 한국어의 특성상 생략되었다. 대신 동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새로운 무생물 주어 ‘배가’가 한국어에서 주어로 선택되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배가 퉁퉁 불어나고 있어요.’ 라는 이중주어 구문의 형태를 보이며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아래 (31)는 유생성이 높은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고, 무생물주어가 처소격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 (31) a. His interview report *described* him as confident, sincere and keen to get into the air.
- b. 입대 때 그를 면접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터 드미트릭은 자신감이 있고 성실하며, 빨리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날고 싶어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RD 101: 106)

23)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임.

(31)에서 무생물주어 ‘그의 면접 보고서(his interview report)’가 ‘묘사하다, 기술하다(describe)’의 행위자 주어가 되어 한국어로 번역될 수 없다. (31a)의 생물목적어 ‘him’이 주어로 격상되고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영어의 무생물주어는 (31b)처럼 ‘그를 면접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으로 주어가 처소격조사를 취하여 번역되었다.

둘째, 생물목적어가 유지되거나 생략된 경우인데 무생물주어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영어의 생물목적어가 유지되고 무생물주어는 한국어에서 도구격으로 번역되어진 경우를 살펴보자.

(32) a. And his quiet sense of humor and love of practical jokes  
had kept *the family* laughing.

b. 그리고 [Ø(=그는)] 은근한 유머감각과 농담으로 가족들을 웃  
기곤 했다. (RD 101: 12)

예문(32)은 번역문에서 인간소유주가 비록 생략이 되었지만<sup>24)</sup> 무생물주어 ‘his quiet sense of humor and love of practical jokes’는 유생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생겨난 것이 한국어 번역에서 생략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비록 생략되었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32a)의 무생물주어는 목적어 ‘the family’를 웃길 수 있는 도구의 역할로 격조사 ‘으로’를 취하여 도구격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무생물주어가 유사행위자로서 주어로 유지되고 생물목적어는 생

---

24) 한국어 생략의 담화화용적인 요인은 정연창(2007)을 참조하기 바람

략되어 번역되어진 경우이다.

(33) a. The Huntercombe team assured *them* Brandon was now ready to go home.

b. 헌터콤 병원 의료진은 브랜든이 이제는 퇴원해도 된다는 허락을 내렸다. (RD 101: 32)

무생물주어인 ‘The Huntercombe team’은 병원에서 협동하여 일하는 ‘team(그룹, 조직)’을 의미하여 유사행위자로 인식되어 타동사구문의 주어로 유지된 채 번역된 것이 자연스럽다. (33b)에서 영어의 ‘team’은 유생성의 정도가 좀 더 강한 ‘의료진’으로 바뀌어 번역되었다. 한국어에서 여격으로 번역된 생물목적어는 문맥상 추론이 가능하여 생략 되었다.

지금까지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의 번역을 살펴보았다.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 5개 중, 3개(60%)의 경우에서 유생성이 높은 생물목적어가 한국어에서 주어로 격상되었고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목적어가 무생물일 때 번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3.3.2 무생물 목적어

무생물목적어가 사용된 무생물주어 구문은 총 15개 발견되었고, 이중에 영어의 주어와 목적어가 한국어 번역에서도 유지되어 번역된 경우가 9개(60%), 주어나 목적어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번역된 경우가 6개(40%)이다.

## (1) 무변화

첫째, 무생물주어가 3.2.1에서 살펴봤듯이 기관인 경우와 조직, 나라, 도시 또는 기계일 때도 유사 행위자로 판단하여 한국어 번역에서도 주어로 유지되는 경우가 9개 문장 중 4개(44.4%)가 발견되었다.

아래 (34)는 무생물주어가 ‘나라’이고, (35)에서는 ‘도시’인 경우이지만, 두 경우 모두 숨은 인간행위자가 암시된 것으로 보인다.

(34) a.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s *full responsibility*.”

b. “미국,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다.” (RD 101: 70)

(35) a. ...“Washington Shows *Great Enthusiasm* in Our Proposal.”

b. ...“워싱턴이 우리의 제안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RD 101: 72)

무생물주어가 기계일 때도 인간 행위자가 암시된다. 기계는 인간행위자에 의해 조종되므로 무생물주어가 번역에서도 주어로 유지된다.

(36) a. The van hit a pothole, and out the window spilled some of the groceries.

b. 그 때 차가 땅이 움푹 파인 곳을 지나면서 쇼핑한 물품 몇 개가 창밖으로 떨어졌다. (RD 101: 38)

둘째, 무생물주어가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주어가 한국어에서도 유지되어 번역된 경우이다.

(37) a. ...the brakes would be warm, and this would reduce *the inevitable violent jerking and thrusting forward motion* that comes with trying to stop 4,900 tons of rolling freight.

b. ...브레이크가 가열될 것인데 이 압축공기가 4900톤의 화물이 정지하면서 생기는 *격렬한 요동과 앞으로 밀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RD 101: 48)

위의 (37a)에서 주어 'this'는 선행문맥에서 지칭하는 의미가 선택되어 '이 압축공기'로 번역되고, '공기'는 무생물로서 의지는 지닐 수 없지만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실제로 사건을 주도할 수 있다.<sup>25)</sup>

아래 두 예문 (38)-(39)의 주어가 병명인 경우인데, 역시 (37)과 같이 주어자리가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38) a. ...tumors "trick" *the body* into sprouting new blood vessels to help them grow. (RD 101: 92)

b. ...종양이 신체를 "속여서" 자기가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핏줄을 생성하도록 한다는 이론이었다.

영어의 주어 'tumor'는 위 (38)의 주어 '공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가

25) 김은일 외(2009)에 의하면 바람, 태양, 구름 등과 같은 자연은 무생물로서 의지는 지닐 수 없으나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며 사건을 야기할 수 있고 목적어의 변화도 초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여기서 동사 ‘trick’에 큰따옴표(“”)26)를 사용하여 무생물주어를 의인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간행위자보다는 전형적이지 않지만 행위자 역할을 하므로 타동사의 주어자리를 유지하여 번역되었다.

다음의 (39) 또한 병명이 사용된 무생물주어구문으로 한국어에서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되었지만, 목적어가 전형적인 격조사 대신 다른 조사를 취한 경우이다.

- (39) a. *The lupus attacked*<sup>27)</sup> *her kidneys, liver and bone marrow.*  
 b. 루프스가 신장, 간, 골수에까지 침입했다. (RD 101: 82)

(39)의 무생물주어 ‘루프스’<sup>28)</sup>는 ‘tumor’와 같은 경우이다. 동사 ‘attack’의 번역이 한국어에서 ‘공격하다’로 표현한다면 약간 어색한 문장이 된다. 사람이 ‘공격하다’의 주어가 되는 것은 어색하지 않지만 무생물인 경우 ‘공격하다’보다는 ‘침입하다’가 더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세균이 침입하다’가 ‘세균이 공격하다’보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목적어가 여격조사 ‘에’와 특수조사 ‘까지’를 취하여 번역되었지만, 목적격 조사 ‘를’로

26) 글 가운데서 직적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문장부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대화나 말은 인간의 행위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주어를 의인화한 것으로 보임.

27) (39a)의 동사 ‘attack’은 ‘-을 공격하다’의 의미로서 목적어가 전형적인 격조사 ‘을/를’을 취하는 동사인 반면, (39b)의 ‘침입하다’는 ‘-에, -에게, -을, -으로 침입하다’의 의미로 격조사 ‘에, 에게, 을, 으로’를 모두 취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8)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도 불리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염증성 류마티즘 질환의 일종, 반흔이 늑대에게 물린 자국과 비슷해 늑대를 의미하는 라틴어 ‘lupus’가 병명에 사용되었다. (<http://ko.wikipedia.org>)

대체하여도 문법적인 오류가 없으므로 목적어가 유지되어 번역된 것이다.

이 절에서는 무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이 한국어 번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무생물주어에 인간 행위자가 암시되어 있는 기관, 나라, 도시 등과 인간이 움직이게 하는 기계가 주어로 사용된 경우와 인간행위자보다는 덜 전형적이지만 무생물주어가 행위자 역할을 하여 타동사의 주어자리를 유지한 경우이다.

## (2) 변화

무생물목적어가 사용된 문장 총 15개 중 변화가 있는 6개(40%)의 영한 번역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인간참여자(즉, 행위자가 암시된 기관, 나라 등)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래 예문에서처럼 소유주가 나타난 경우가 6개중 2개(33.3%)였다.

무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 생물주어로 바뀌어 유생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이다.

(40) a. To Les Martres **his memory** means *something more*.

b. 그러나 레마르트르 사람들에게 **드미트릭은** 그 이상을 뜻한다. (RD 101: 124)

예문(40)에서 무생물주어인 ‘his memory’를 문맥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간(생물)명사로 대체하여 ‘드미트릭은’이라고 번역했다.

‘memory’는 무생물이지만, 기억은 유생성이 높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므로 유생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주어로 유지되었지만 ‘his memory’가 문맥 속에서 지칭하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대체되어 번역되었다.

유생성의 변화가 있는 또 다른 예를 보자. 아래 (41)는 무생물목적어의 유생성이 생물로 바뀌어 주어로 번역된 경우이다.

(41) a. The sight of her son without his baggy clothes took **Marie’s breath** away.

b. 험령한 옷을 벗은 브랜든의 몸을 본 **마리는** 너무 놀랐다.

(RD 101: 124)

위의 (41a)의 무생물목적어 ‘Marie’s breath’가 유생성이 높기 때문에 목적어자리에서 주어로 격상되어 ‘마리는’이라고 번역되었다. 원래 무생물 주어는 새로 선택된 주어 ‘마리는’을 수식하는 관계절로 번역되고 자동사 구문으로 번역되었다.

둘째, 한국어에서 인간행위자가 부각되어 번역되지만 생략된 경우(2개: 33.3%)를 살펴보겠다.

(42) a. The tube would give Brandon *liquid food*,...

b. [Ø(=인간행위자주어)] 튜브를 통해 유동식을 공급하되...

(RD 101: 28)

위의 (42)에서 ‘the tube’와 같은 무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 ‘give’의 행위자 주어로 허용되지 않아 새로운 인간행위자 주어(즉, 문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또는 대명사)가 채택되어 번역되어야 하지만, 사람 주어 생략이 용이한 한국어의 특징으로 행위자주어가 생략된 것이고, 영어의 무생물주어는 도구격으로 번역되었다.

인간행위자가 생략된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43) a. In the years since, his discovery has spawned a heated race to develop drugs capable of preventing tumors from growing.

b. 그 후, 그의 발견을 근거로 해서 종양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약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RD 101: 92)

한국어에서 동사 ‘spawn(산란하다)’의 주어는 생물만이 가능하므로 무생물 ‘his discovery(그의 발견)’가 주어로 유지되는 것이 어색하다. (43b)에서 인간행위자가 부각되어 번역되는 것이 생략된 경우이다. (43b)를 인간행위자가 드러난 능동으로 번역하면 ‘그의 발견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종양의 성장을 방해 할 수 있는 약품개발을 활발히 이루어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수동태를 이용하여 한국어에서 부각된 인간행위자를 생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어의 무생물주어는 번역문에서 주어가 아니라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구<sup>29)</sup>로 표현되었다.

29) 이영옥(2001)은 영어의 본래 의미를 지니면서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생물 주어가 단독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조사나 동사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셋째, 타동성이 낮은 무생물주어가 유지되어 번역된 경우가 2개(33.3%)이다. 동사에 따라 목적어가 한 개는 여격으로 나머지 한 개는 처소격으로 번역된다.

먼저, 목적어가 아래(44)와 같이 여격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42)의 무생물주어 ‘the tube’와 (44)의 주어가 동일하지만 (42)와 달리 (44)에서는 영어의 무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도 주어로 유지된 경우이다.

- (44) a. The tube was feeding *his body*, but his illness demanded he starve.  
b. 튜브는 그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병마는 그에게 굶을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sup>30)</sup> (RD 101: 26)

여기서는 타동성이 낮아 사건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분명하지도 않으며, 피동작주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도 뚜렷하지 않아 무생물주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동사 ‘feed’는 비전형적 타동사로서 암시된 피동작주를 포함한다(Givón 1993).<sup>31)</sup> 동사의 의미는 ‘-에게(에) -을 공급하다’로, 암시된 목적어 ‘영양을’이 (44b)에서 새롭게 추가되고 영어 목적어 ‘his body’는 격조사 ‘-에’를 취하여 여격으로 번역된 것이다. 무생물주어

30) (44b)의 번역이 필자에게는 자연스러운 한국말 같지는 않으며, 무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도 주어로 번역된 또 다른 요인으로 무생물주어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영어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31) Givón(1993)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명백히 드러난 직접목적어는 종종 암시된 피동작주가 움직여 가는 것과 관련된 장소이다.

가 한국어에서 주어로 유지된 것은 영한 번역이 무생물주어가 자연스러운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아래 (45)의 무생물주어 역시 유지되어 번역되지만, 목적어가 처소격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45) a. When 4618 reached *the Stoner crossing*, a Mountie was waiting.

b. 열차가 스톤너 건널목에 이르자 기마경찰관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RD 101: 56)

동사 ‘reach’ 또한 가시적인 변화를 야기 할 만큼 타동성이 높지 않으므로 무생물주어가 유지되고, 동사 ‘reach’의 의미는 ‘-에 이르다, 도달하다’로서 목적어는 당연히 장소가 사용되며, 격조사 ‘-에’를 취하여 처소격으로 번역된다.

지금까지 무생물주어 구문의 목적어 유생성에 따른 번역을 살펴보았다. 앞서 서론에서 조인정(2005)의 영어 무생물주어 타동사 구문과 대응하는 한국어 구문의 번역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무생물주어 구문의 번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인정의 일반화와는 달리 영어의 무생물주어가 유사행위자인 경우와 타동성이 낮은 문장의 일반적인 무생물주어의 경우에 한국어에서도 무생물이 주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문장 내에 인간을 나타내는 소유주가 있는 경우 유생성이 높아 주어로 선택되어 번역되어 무생물주어가 주어로 번역되지 않는 경우이다. 조인정의 일반화와 같이 영어의 무생물주어가 도구격이나 원인을 나타내

는 부사구로 번역되는 경우 한국어 번역문에서 부각된 인간참여자는 생략되어 번역되었다.



## 4. 결론

지금까지 Reader's Digest 영한대역 101권에서 발췌한 타동사 구문 145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유생성의 영한번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생물주어 구문의 한국어 번역이 달라지는 비율(22.6%)이 무생물주어 구문의 번역이 달라지는 비율(52.4%)보다 낮았다. 이는 한국어는 무생물주어가 영어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주어와 목적어의 유생성과 관련된 영한번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의 주어와 목적어가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30개중 17개(56.7%)이다. 변화가 있는 경우, 주어가 생략되어 번역된 경우를 포함해 영어의 생물주어 모두 번역에서도 주어 자리를 유지하였다.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로는 목적어가 생물로서 여격조사 '에게'를 취하여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고, 생물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어 이중주어 구문으로 번역될 때는 주어의 생략이 용이하여 한국어에서 생물주어가 생략되었다.

둘째, 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의 생물주어 역시 한국어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98.9%)이 아주 높다.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15개)에는 첫 번째로 무생물목적어가 주어자리로 격상되어 한국어의 이중주어 구문의 형태로 번역된 유형이 12개(80.0%)이다. 두 번째는 목적어가 보어로 번역된 경우가 2개인데, 모두 동사 'have'가 사용된 문장이다. 나머지 한 개는 무생물목적어가 여격조사 '-에'를 취하여 번역되었다. 마지막 한 개를 제외한 첫째, 둘째 경우의 타동사는 모두 자동사로 번역되었다.

생물주어 구문의 한국어번역에서 영어의 인간행위자를 동사와 관련된 구체적 대상(즉, 무생물)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 인간요소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 6개중 번역에 변화가 없는 경우(1개: 16.7%)는 무생물주어가 인간행위자를 암시하고 있어 한국어에서도 주어자리가 유지되었다. 번역이 달라진 경우(5개: 83.3%), 목적어가 주어로 격상되고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것이 3개(50%)인데, 무생물주어는 축소격, 유지 또는 생략의 다양한 번역유형을 보였다.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무생물주어가 인간행위자를 암시하여 주어자리가 유지된 경우와, 새로운 인간행위자가 번역문에서 선택되고 무생물주어는 도구격으로 번역되었다.

넷째, 무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 역시 영한번역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는 무생물주어와 전형적인 인간행위자에 비해 덜 전형적이지만 사건을 주도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무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도 주어로 번역되었다.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로는 영어의 무생물주어가 도구격이나 부사구로 번역된 것이다. 이 중 한 개는 인간행위자가 생략된 타동사구문으로, 나머지 한 개는 인간행위자가 생략된 수동태구문으로 번역되었다. 그 외에 영한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유생성이 높은 요소(즉, 소유주)가 번역문에서 새로운 주어로 선택되어 번역되는 경우와 타동성이 낮은 문장의 무생물주어가 한국어에서도 유지되어 번역되는 경우가 있었다.

## 참 고 문 헌

- 김신영. 2002. 「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난 타동성의 부호화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3.
- 김은일. 2001. 유생성 부호화의 유형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37-57.
- 김은일. 2002. 기능문법과 영어교육. 「현대문법학회」 27, 105-121.
- 김은일, 정연창. 2006. 주어 생략과 모호성 조건. 「언어과학연구」 37, 93-112.
- 김은일, 정연창. 2008. 한국어 '되다'구문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기능문법적 설명. 「언어과학」 15.3, 61-82.
- 김은일, 김명애, 정연창. 2009. 유생성이 영한 번역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 16.1, 1-17.
- 서정수. 1971. 국어의 이중주어 문제: 변형생성 문법적 분석. 「국어국문학회」 52, 1-27.
- 우형식. 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 이영옥.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9-70.
- 정연창. 2007. 주어 생략에 대한 소고. 「언어과학」 14.2, 101-120.
- 조인정. 2005.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부정성 주어와 타동사 구문. 「한국어학회」 16.3, 337-350.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Press.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 1979. Ergativity. *Language* 55, 59-138.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ume I*. Amsterdam: John Benjamin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ume I*. Amsterdam: John Benjamins.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2002. 「기능영문법 I」. 서울: 박이정)
- Givón, T. 2001. *Syntax: An Introduction*, Vol.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 Hopper, P. J. and S. A.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251-299.
- Ikegami, Y. 1991. 'Do-Language' and 'Become-Language': Two contrasting Types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Ikegami, Y. (ed.), *The Empire of Signs: Semiotic Essays on Japanese Culture*. Amsterdam: John Benjamins. 285-326.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lverstein, M. 1976. Hierarchy of Features and Ergativity. In Dixon, R. M. W. (ed), *Grammatical Categories in Australian Languages*.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Studies.

- Song, N. S. 1987. Empathy-based Affectedness and Passivization.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1987, 74-89.
- Taylor, J. R.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